

“한국인에게 바치는 노래”

본보 특별후원

LA매스터코랄 '한국이야기' 공연 LA타임스 크게 보도

오는 3월6일 본보 특별후원으로 일트 다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LA매스터코랄의 '한국이야기' 공연에 대해 LA타임스가 27일 필리더 섹션을 통해 크게 보도했다.

특히 작곡가 마크 그레이가 쓴 '무궁화: 사본의 장미'의 초연에 대해 이 곡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사연과 의미, 기대를 자세히 보도한 신문은 공연을 이끌어가는 세 사람-지휘자 그랜트 거슨, 바이얼리니스트 제니퍼 고, 마크 그레이를 함께 인터뷰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쓴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이 공연이 얼마나 뜻깊고 중요할지를 깊이 있게 다뤘다.

기사는 분단 한국의 상처와 이산가족의 한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무궁화'의 사발집이 된 재미한인 연주자 김남수(가명)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그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 발견한 수많은 시와 북한에 누나와 주고받은 편지가 이 곡의 가사로 사용됐다가 이 공연에 대해 미주한인 커뮤니티가



LA매스터코랄이 일트 다즈니 콘서트 홀에서 3월6일 공연할 '무궁화: 사본의 장미'의 주인공인 마크 그레이 작곡가, 제니퍼 고 바이얼리니스트, 그랜트 거슨 지휘자 (왼쪽부터)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평정한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40분짜리 대작 '무궁화'에서 슬로이스트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제니퍼 고는 자신의 부모가 6.25때 걸어서 남하했고 아직도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다고 개인적 스토리를 소개하고 "이 곡은 과거와 현재, 남과 북, 사람들을 잇는 인류애의 브리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마크 그레이는 고 김남수씨의 시를 통하여 통해 처음 읽었을 때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이 곡은 "래퀴엠과 민족의식(굿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가족과 재회하려는 한 남자의 영혼에 대한 축하가 교차하는 음악"이라고 소개했다. 그랜트 거슨 지휘자는 "한인 커뮤니

티는 합창단이 굉장히 맑고 합창공연이 활발한 문화를 갖고 있으니 이번 콘서트에 특별한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고 "한국말로 노래하는 합창이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제니퍼 고와 마크 그레이가 선택한 가사들은 한국어로나 영어 번역어나 노래로서 너무 아름답다"고 말했다. <정숙희 기자> <관계기사 19면>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독도 알리기 클럽'을 결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네소타폴리스에 있는 미네소타대(UMN)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섬-독도 알리기 클럽'(Korea's Island Dokdo) 소속 한국 유학생들.

이 클럽은 지난해 3월 장지효(마케팅 전공 4학년), 한지혜(신문방송학 4학년)양 등 유학생 4명이 주도해 결성한 동아리로, 현재는 14명의 한국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다.

최장인 한지혜양은 27일 '대학 내 미국 친구들과 인공 커뮤니티에 독도가 한국 땅이란 사실과 역사적 배경 등을 홍보해 보자는 취지에서 결성됐다'면서 "독도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도 홍보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사마네현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지난 22일에는 학생회관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란 점을 설명하는 각종 자

미네소타대학교 한국 유학생 14명 '독도 알리기 클럽' 미 주류에 홍보

료를 전시하고, 동영상도 상영했다. 앞서 작년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맞아서는 교내 신문인 '미네소타 데일리'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유세 지임차 미네소타 대학을 방문해 행한 연설내용을 집중 보도한 기사와 함께 실려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후문이다.

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행복한 독도의 날'(Happy Dokdo Day)이라는 문구와 독도가 들어간 동해 지도가 걸려있는 생겨진 생수를 나눠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신문 광고비와 생수 구입비용 마련을 위해 용돈을 모으는 한편, 교내 학생활동 지원단체 및 한인단체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지난 25일에는 한국의 여가문화와 술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고, 2월 초에는 한류 드라마를 미국 학생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작년 가을에도 캠퍼스 곳곳에 동해와 독도가 그려진 지도와 독도가 한국 땅이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전시물들을 전시했고, 비밀밥과 한복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온라인 사기 갈수록 기승

10년간 200만건 17억달러 피해

온라인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미 연방수사국(FBI) 산하 인터넷 범죄신고센터(IC3)에는 200만건이 넘는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 3년간 배로 늘어난 것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인터넷 범죄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모두 17억달러에 이르고 평균 피해액은 500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월 발표된 컴퓨터 보안

업체 맥아피의 조사결과 2000년에는 인터넷 사기의 유형이 해커들이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함으로써 자신의 송금을 자랑하는 것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돈을 훔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수백만명의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소셜네트워킹 계정을 갖게 됨으로써 온라인 범죄에 더욱 취약해졌다. 최근에는 암호 재설정 요구를 통한 사기행각,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나타난 유명 이슈나 계절적인 주제를 이용한 사기 등도 늘어나고 있다.



교사 지망생 세미나

공립학교 교사 지망생을 위한 특별세미나가 26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칼스테이트 LA교육대학원 산하 '공립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는 로리 김 디렉터 등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 한인 교사 지망생들에게 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와 교사 시험(CBEST)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교사 지망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 <김지민 인턴기자>

한국일보

www.koreatimes.com

THE KOREA TIMES (ISSN 1529-0776) is published daily except on Sunday and Monday postal holidays. Subscription rate is \$364.00/year (included applicable Calif. sales tax), and published by The Korea Times Los Angeles, Inc., 40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Los Angeles, CA and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TIMES P.O. Box 74617, Los Angeles, CA 90094-0617.

THIS PUBLICATION INCLUDES			
FINAL EDITION	A1-A24	BUSINESS	D1-D16
SPORTS	B1-B24	EDUCATION	F1-F16
KOREAN NEWS	C1-C16	CLASSIFIED	E1-E16

한국일보는 세계적인 자연보호 협회인인 호성, 자원봉자를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EC021 EC021



만족이 아닌 감동을 드립니다.

OK보석금

한인 최초, 최고의 회사 / 신속한 업무처리
24/7 day 한인이 직접 상담 / 개인의 비밀 절대보장
(213) 365-6565
365일 OKOK Lic# BA1844623 OKOK